

다산포럼



김 태 희
다산연구소 소장

올해는 '경제유표' 저술 200주년이 되는 해다. 다산 정약용은 '경제유표'에서 군주를 중심으로 한 일원적 관료 체제 정비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었다. 그 밖에 많은 분량을 할애한 제도 개혁안(考績法·田制·賦貢制 등)은 '용인'과 '이재'(理財)의 틀로 압축할 수 있다.

'용인'과 '이재'는 각각 '상사'에 나온 '지인'(知人), '안민'(安民)과 통한다. 첫째, 인재를 잘 알아보고 잘 평가하여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를 잘 운용하여 민부(民富)를 늘리고 수취 체제를 개선하여 부담을 줄여서 민생을 편안케 하는 것이다. 현대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도덕만을 내세워 민생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농후했다. 지나친 도덕 강조가 공허한 허위의식으로 전락한 면도 있었다. 실학자들은 그런 역사를 반성하여, 이재를 강조했다. 민생이 넉넉

관중이 비록 그릇은 작았지만

해야 도덕적 사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많이 거론된 인물이 바로 관중(중국 춘추시대 인물)이다. 그가 말한 “공간이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넉넉해야 영욕을 안다”는 문구가 줄곧 인용되었다.

관중에 대한 정약용도 이재를 잘한 인물로 평가했는데, 그 자신이 지인 내지 용인의 사례로 꼽힌다. 관중은 포숙아의 추천으로 제 환공에게 발탁되어 제나라가 패업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공자는 관중의 그릇이 작았다고 하면서라도 그의 공로를 매우 크게 인정하였다. 관중은 유가에서 문제적 인물이었다.

'사기열전'에 따르면, 관중은 인간적으로 썩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 그는 포숙과 장사를 할 때 이익을 더 차지하곤 했다. 포숙의 일을 더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다. 세 번 벼슬길에 나가서 번번이 쫓겨났다. 세 번 전쟁에 나가 번번이 달아났다. 모시던 주군이 패사했는데 생사를 함께 하지 않고, 구차하게 목숨을 건졌다.

그런데도 포숙은 관중이 가난해서 그랬다, 시운이 나빠서 그랬다, 노모가 있어서 그랬다, 사적인 의리보다 천하의 공명(功名)을 더 생각해서 그랬다 등으로 두둔했다. 포숙은 관중이 불초하다고 보기 싫은 관중을 칭찬하려고 썼을 것이라고 믿었다. 마침내 관중은 제나라 재상이 되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관중은 말했다. “나를 날아 준 사람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 준 사람은 포숙이다.” 사마천은 말했다.

“천하 사람들은 관중의 현명함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인재를 알아보는(知人) 포숙의 뛰어난 점을 칭찬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후 대통령의 인기가 아이돌 수준이다. 탈권위적 행태가 호평을 받았다. 지난 정권의 권위적 행태와의 대비 효과가 컸다. 자력·능력과 거리가 먼 패거리 정치와 보는 인사에 식상했었다. 따라서 측근 배제의 인사도 신선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었던 지난 정권의 인사에도 불만이 많았었다. 따라서 탕평 인사도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패조의 스타트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다. 다만 아직 초기일 뿐이다. 민생 부문에서 실질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면 국민의 지지가 약해질 것이다. 또한 개혁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안팎의 반발과 실망을 낳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하려면 역시 인사가 중요하다.

그런데 인사와 관련해 최근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사 5원칙을 공약한 바 있었다. 부패하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한때 있었지만,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었다. 국민의 도덕성 요구는 더욱 강해졌고, 인사 기준 천명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 환영할 만하다. 다만 도덕적 결벽증이나 독선에 빠지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공직자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왜인가? 개인적 차원의 도덕군자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공직을 수행하려면 공(公)의식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도덕성이 없다면 그런 공의식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공공성과 도덕성을 갖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그런데 도덕성 요구가 오십보백보식의 흡집 내기와 무차별적 정쟁 거리로 전락한다면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차제에 자력 판단의 객관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자질 검토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저울질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소견이다. 향후 개혁을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다. 객관적 원칙도 중요하지만 구체적 타당성을 원하는 실질적 판단을 계속 리해서는 안 된다. 좋은 동기만으로 부족하고 현실적 결과를 헤아려야 한다.

지난 26일(금요일) 강진에서 '경제유표' 저술 2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다산 정약용, 강진에서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다')가 있었다. 강진 군민과 함께 했던 학술대회는 고무적이었다. '경제유표' 저술 동기인 '신어구방'(新我舊邦·우리의 낡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에, 새로 막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오버랩되었기 때문이다. 어려운 때 국정을 담당하게 된 새 정부가 궁극적으로 성공해서, 임기를 마쳤을 때 국민의 종합적 평가가 높기를 기대해 본다.

정촌 특·특



김 성 태
(주)휴이컴퍼니 대표

첫 직장생활에서 나의 목표는 회사 대표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2인자였다. 대표가 하고자하는 일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사업방향을 제시하곤 했다. 회사의 일이 체계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시스템화하고, 매번 분석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대표에게 보여주는 일. 대표가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정한 2인자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내가 모시는 대표의 그릇이 남달라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나를 담지 못할 그릇을 가진 사람 밑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내가 대표가 되자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던 내가 사업자금을 마련해놓았을

‘독이 든 성배’ 청년창업지원 정책

리 없었다. 당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몇 해전부터 창업 붐이 일기 시작했다.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창업자들로 이어졌다. 창업자 지원을 통해 매년 수백, 수천의 창업자가 탄생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 후 기업이 3년간 버틸 수 있는 비율, 즉 생존율은 5% 이내라고 한다. 그 5%에 되기 위해 노력하는 창업자들은 어쩌면 취업준비생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말 그대로 ‘성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난 운 좋게 창업 4년차에 접어들었고, 아직 생존해 있다. 그리고 매일 고민한다. 직원들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까? 모두가 즐겁고 재밌게 다니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라면 분명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비록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아 자리를 잡아가고 꿈을 키워가고 있으나, 창업을 권하는 정부정책을 보고 있으면서 ‘불편함’을 느끼곤 한다. 창업에 실패한 경우 지원해주는 대비책을 찾아볼 수 없어서다.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 후 생존을 위

한 정책,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정책은 부실하다.

지금의 청년창업지원 정책들은 마치 일생에 딱 한 번 주어지는 ‘독이 든 성배’ 같다. 1년 만에 100억 매출, 100억에 인스할 병 등 일부 창업자들의 성공신화를 보여주면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허황된 희망을 청년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그렇게 독이 든 성배를 손에 건넨다. 성배를 받아도 청년창업자들 중 95%가 실패하고, 수익 원에 달하는 빚을 남긴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더디지만 꾸준히, 그리고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는 회사, 직원을 한 명씩 늘려가며 어떻게 해야 좋은 회사를 만들까 고민하는 기존 회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저 새로운 청년창업자 모집에만 열안이 돼 있는 모양새다.

창업에는 창업자의 생각과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 창업자들 사이에서 “나 이번에 정부지원사업 신청해서 합격했어”라는 대화도 쉽게 들을 수 있다. 청년창업 정책에 대해 이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무분별한 창업정책은 정부의 눈먼 돈을 받아내 그저 연명하는 창업자를 길러내는

것과 다름없다. 회사의 철학과 가치관, 창업자의 꿈이 아닌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서만 창업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은 성공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지난 25일 페이스북(Facebook) 설립자이자 CEO 마크 주커버그는 2005년 중퇴한 지 12년 만에 모교 하버드대학 졸업식에서 명예학위를 수여받았고, 역대 연사 중 최연소 축사를 맡았다. 그의 축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 수 있는 자에서 온다.”

주커버그는 실패하면 받아줄 수 있는 안정만이 있기 때문에 꿈을 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런 사람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 같은 사람이 안전망이 돼 도와야한다고 했다.

취업이 힘들다고, 일자리가 없다고 무작정 창업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청년들을 궁지로 몰아 넣는 창업정책도 더 이상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 주커버그가 말한 것처럼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보장된 안전망 속에서 청년들이 꿈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청년창업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社說

새 국면 접어든 국무총리 후보 인준 논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단 성이 없다면 그런 공의식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공공성과 도덕성을 갖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그런데 도덕성 요구가 오십보백보식의 흡집 내기와 무차별적 정쟁 거리로 전락한다면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차제에 자력 판단의 객관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자질 검토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저울질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소견이다. 향후 개혁을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다. 객관적 원칙도 중요하지만 구체적 타당성을 원하는 실질적 판단을 계속 리해서는 안 된다. 좋은 동기만으로 부족하고 현실적 결과를 헤아려야 한다.

지난 26일(금요일) 강진에서 '경제유표' 저술 2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다산 정약용, 강진에서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다')가 있었다. 강진 군민과 함께 했던 학술대회는 고무적이었다. '경제유표' 저술 동기인 '신어구방'(新我舊邦·우리의 낡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에, 새로 막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오버랩되었기 때문이다. 어려운 때 국정을 담당하게 된 새 정부가 궁극적으로 성공해서, 임기를 마쳤을 때 국민의 종합적 평가가 높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만은 협조하기로 했다”고 김동철 원내대표가 밝혔다. 그동안 이 후보자의 흡결로 지적돼 온 위장전입이 투기 목적이 아니었던 데다 과거 ‘위대한 영도자’ 운운의 기사도 당시 권익현 의원의 말을 인용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호남 총리’와 ‘원칙 고수’의 갈림길에 섰던 국민의당으로서의 일단 정권 초기 국정 안정을 위해 협조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담대한 결성’을 내린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정의당도 어제 문 대통령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요청과 관련,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리했다. 이로써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여야는 국정 안정과 개혁을 하루속히 이뤄야 한다는 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기름 피해 어민 조속히 보상해야

엇그제 진도 동거차도 주민 80여 명이 목포신항을 찾아 생계 보장을 요구하며 어룽간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으로 떠나면서 3년 만에 삶의 타전을 되찾았지만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이 미역 양식장을 덮친 피해를 아직 보상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거차도에는 13가구가 미역 양식을 하고 있는데 세월호 기름 유출로 인해 구덩당 평균 1억8000만 원 등 총 23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 또한 자연산 미역 채취에 종사하는 70여 명의 동거차도 주민들도 자연산 미역이 한창 자라날 시기에 기름이 유출된 탓에 1인당 1000만 원씩 모두 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동거차도 주민들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왔다. 더군다나 주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업을 제쳐 놓고 묵묵히 구조와 수색·방재 작업에 동참해 왔다. 하지만 얽힌 데 얽힌 격으로 세월호 기름 유출 여파로 진도산 수산물 기피 현상까지 반치면서 관광산업

마저 직격탄을 맞았다.

문제는 동거차도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월호 여파로 13~14만 원에 거래되던 미역 1돛이 올해는 7~10만 원으로 떨어졌고 중개업자들도 매입을 꺼려 인건비 지급도 막막한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는데 정부는 3년이 지나도록 생계 보장만 약속할 뿐 실질적인 지원을 미루고 있다.

동거차도 주민들은 제2의 세월호 피해자나 다름없다.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생계를 접고 가장 먼저 승객 구조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이 들이다. 또한 미역 양식장이 기름으로 뒤덮일 때도 불만은커녕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했다.

정부는 이런 동거차도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하루빨리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동거차도 어민들의 눈물을 외면 해선 안 된다.

無 等 鼓

봄인지 여름인지 경계가 애매하다. 아직 5월이지만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니 이미 한여름에 들어선 듯하다. 더욱이 비가 내리지 않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니 체감온도는 더욱 높다.

문제는 비다. 광주 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광주에는 8일간 104.5mm의 비가 내렸다. 반면 올해 5월에는 5일간 27.3mm만 내렸다. 지난해의 26.1% 수준에 불과한 강수량이다. 농사를 전혀 짓지 않는 도시 생활자도 주변 화단에 심어진 들나물 등 채 색깔을 잃고 시든 식물을 보면 얼마 나 가뭄이 심한지 조금은 눈치챌 수 있다.

에나 지금이나 가뭄엔 속수무책인 것일까? 하늘만 바라봤던 옛날이나 댐과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갖춘 요즘이나 가뭄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조선 시대에는 가뭄이 든 까닭을 정치적인 것에서 찾았다.

“지금 하늘이 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덕한 내가 왕위에 있기 때문이다.” ‘왕자의 난’을 거쳐 왕위에 오른 조선 태종은 즉위한 지 2년이 된 1402년 7월, 극심한 가뭄에 자책하며 눈물을 흘린다.(조선왕조실록 태종 2년 7월4일)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기 고



조 현 응
아동옹호센터 전남본부
아동옹호센터 소장

가정의 달 5월이 막바지다. 무수히 많은 어린이 관련 행사도 마침표를 찍고 있다. 연례 행사처럼 5월이던 반짝 등장하는 어린이 관련 행사와 넘쳐나는 뉴스를 보면 '이제 아이들의 삶도 조금 더 행복해지겠지'라는 기대감도 가져왔다. 그것도 잠시, 금방 식어버리는 관심은 차디찬 한겨울 바람보다 매섭다.

2013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국가 중 최저치에 불과하다. 일반 가정보다 빈곤가정이, 양부모 가정에 비해 한부모·조손가정의 삶의 만족도는 현저히 낮다. 아동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과도한 학습량과 여가시간 부족 등 학습에 지나게 편중돼 있는 현실과 환경을 개선할 대안도 전무하다.

아이들의 놀 권리와 현주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해 거주지별 아동 생활시간 조사한 '아동시간표' 보면, 프랑스는 '수업 없는 수요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권리 보장을 기반으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가가 전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놀이는 삶을 살아가는 법,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가르침이다. 한 아이에게 놀 권리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다. 그 아이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내가 놀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면 혼날 것 같다'고 답했다. 분명 이런 비슷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어른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놀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다를까? 어른 입장에서 놀이는 일하지 않는 시간에 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놀이는 생활이자 삶 그 자체다. 또래 관계와 재미, 즐거움,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스승이자 친구인 친구들과 놀이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체·습득하고, 규칙을 만들고 지키면서 다른 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중재와 타협, 배려를 통해 사 회를 익혀나가게 된다. 놀이마저 사교육으로 받고 있는 요즘 아이들의 삶은 참 슬프고 보인다. 공부도 놀이처럼 즐겁게 하

활을 세워 교육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20년 장기 놀이정책계획'을, 프랑스는 '수업 없는 수요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권리 보장을 기반으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가가 전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놀이는 삶을 살아가는 법,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가르침이다. 한 아이에게 놀 권리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다. 그 아이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내가 놀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면 혼날 것 같다'고 답했다. 분명 이런 비슷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어른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놀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다를까? 어른 입장에서 놀이는 일하지 않는 시간에 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놀이는 생활이자 삶 그 자체다. 또래 관계와 재미, 즐거움,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스승이자 친구인 친구들과 놀이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체·습득하고, 규칙을 만들고 지키면서 다른 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중재와 타협, 배려를 통해 사회를 익혀나가게 된다. 놀이마저 사교육으로 받고 있는 요즘 아이들의 삶은 참 슬프고 보인다. 공부도 놀이처럼 즐겁게 하

길 바라는 부모의 욕심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전남지역 아이들은 학교 외에는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아이들에게 놀이를 되돌려줘야 한다. 학교 안으로 아이들의 놀이 들어가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학교에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놀이시간을 확보, 눈치보지 않는 분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아이들의 삶에 빠르고 밀접하게 놀이를 찾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놀이에 대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적인 중장기계획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아닌, 반드시 해야 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을 알면 국가의 목표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명시한 관련법과 제도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분히 쉬며 놀 수 있는 실질적인 놀 권리'와 '놀이시간 보장'을 위한 법제화에 앞장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아동들을 위한 공약들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 만개한 장미꽃처럼 환하게 웃는 아이의 표정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